



정교회주보

제2584호

2026년 7월 5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성 사도 바울로의 발자취를 기념하는 베레아의 설교 장소, 말씀을 받아들인 믿음의 자리



마태오 제5주일
성 아타나시우스 아토스 성산 수사
(제4조 • 조과 복음 5)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4조 부활 찬양송 82
 - 수도자 찬양송 85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85
 - 사도경 : 갈라디아 5,22~6,2 (봉)344
 - 복음경 : 마태오 8,28~9,1 110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령께서 맺어 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은유 그리고 절제입니다."(갈라디아 5,22)

[26회] 베레아의 열린 마음

한 밤중에 데살로니카를 떠난 바울로 일행은 박해를 피해 베레아에 이르렀다. 이곳 사람들은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사도행전 17,11)

이들은 선입견이나 완고함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사도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단순히 듣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날마다 성서를 연구하며 깊이 숙고하고 분별하였다. 이런 자세는 감정적 열광이나 일시적 확신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안에서 진리를 식별하고자 하는 영적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말씀과 전승 안에서 진리를 확인하려는 겸손하고도 깨어 있는 모습 속에서 많은 유대인과 귀부인들까지도 믿음에 이르렀다. 베레아인들의 모범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회의 살아 있는 전승과 성서를 붙들고, 분별과 순종 안에서 성장하는 성숙한 신앙의 길을 제시해 준다.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과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박인곤 요한 신부

오늘 복음 말씀에서 주님께서서는 가다라 지방에서 마귀 들린 두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들은 무덤 사이에 살며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그들 앞에서 주님께서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악령들이 먼저 두려워하며 외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이 장면에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봅니다. 악령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앓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사랑하지 않았고, 알아보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입으로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마귀들은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청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를 허락하십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마귀들에게 양보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귀들은 돼지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해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과 영혼은 얼마나 더 하느님의 보호 안에 있겠습니까?”

돼지 떼가 비탈을 내달아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은 마귀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보여 줍니다. 마귀는 언제나 파괴하려 합니다.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인간을 보호하지 않으신다면, 마귀는 사람도 그렇게 멸망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 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

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악은 강해 보이지만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가장 슬픈 장면은 마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마귀 들렸던 사람들이 해방된 것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돼지 떼를 잃은 손해 때문에 예수님

께 자신들의 지방을 떠나 달라고 청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보다 물질적 손실을 더 크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주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 제 삶에 오십시오. 그러나 제 욕심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 재물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 습관과 자존심은 그대로 두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안

의 어둠과 집착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정교회의 삶은 바로 이 치유의 길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회개, 고백성사와 성체성형성사, 금식과 자선을 통해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오늘도 우리 영혼의 무덤 같은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곳, 우리가 숨기고 싶은 상처와 죄의 자리까지도 주님께서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심해야 합니다. 악령들처럼 그리스도를 알아보기도 두려움 속에 머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가다라 사람들처럼 재물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보내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오히려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두려움에서 해방하시고 참된 자유와 평화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영혼은 행동을 닮아 간다 - 겸손과 절제의 삶에 대하여

성 대 바실리오스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당신의 외모와 옷차림, 걸음걸이와 앉는 자세뿐 아니라, 먹는 음식과 침상, 집과 가구까지도 모두 단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과 노래, 친구와의 사귄 또한 알맞게 절제되어야 하며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교묘한 말로 으스대거나 빠가지 말고, 오만하고 과장된 말을 하지 말며, 모든 것에서 과잉과 지나침을 없애십시오.

친구를 잘 대하고, 부하나 하급자에게는 부드러우며, 버릇없고 무례한 이에게는 관대하고, 경멸과 무시를 당하는 이를 친절하고 자애롭게 대하십시오.

고통을 겪는 이를 위로하고, 고난당한 이를 찾아보며, 친절한 말로 이야기하고, 웃음을 띠며 대답하여 누구라도 다가오기 쉽도록 하십시오.

자신을 칭찬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을 칭찬하도록 부추기지도 마십시오.

거만한 말에 동조하지 말고, 할 수 있다면 당신의 훌륭함과 칭찬받을 만한 점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십시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탓하는 첫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이 당신을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해지거나 쉽게 화를 내지 말고, 마치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그의 작은 잘못까지 단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도와주고 영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얻으려고 애쓰는 인간의 영광을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고자 하는 욕심으로 스스로를 망치지 마십시오.

참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위대한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당신의 포부와 의욕을 그분께로 향하십시오. 그분께서 놀라운 보상을 주십니다.

또는 당신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고 칭찬한다면, 당신이 다스리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되십시오. 신약성서에서 “이 세상의 왕들은 강제로 백성을 다스린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백성의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서는 안 된다.”(루가 22,25-26)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겸손을 추구하십시오.

겸손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겸손이 당신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이로써 당신은 참된 영광의 길, 곧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다면, 그분께서는 당신을 그분의 제자로서 천사들에게 알리실 것이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마태오 11,29)라고 말씀하신 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 비잔틴 성화 전시회

지난 주일(28일), 성찬예배 후 서울 성당 마당에서 ‘비잔틴 성화 세미나’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성화작가 소조스 야누디스 교수의 축하 말씀과 전시 소개가 있었으며, 수강생들에게 수료증이 수여되었습니다.



■ 대교구 여름 수련회 - 주일학교, 신데즈모스

올해 대교구 여름 수련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수련회는 예배와 기도, 공동생활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정교인이 아닌 비정교인도 수련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각 성당 사무실에서 7월 15일까지 받습니다.

- 장소: 춘천 성 보리스 성당
- 일정: 7/27(월)-31(금): 초등학생, 중학생 (참가비 12만원)
7/31(금)-8/2(일): 신데즈모스, 예비신자 (참가비 6만원)
8/3(월)-6(목): 고등학생 (참가비 9만원)

■ 대교구 여름 수련회 - 「부모 수련회」

성직자 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부터 ‘부모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모님들부터 중년 세대의 부모님들까지 모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어린 자녀도 함께 참가 가능합니다.

- 장소: 춘천 성 보리스 성당
- 일정: 8월 7일(금)-10일(월) (참가비: 성인 1인당 9만원 / 어린이는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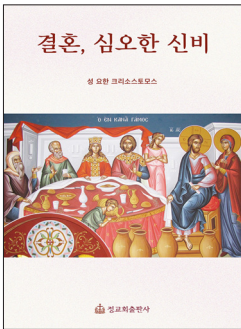
8월 6일 가평 수도원 축일 예배 참석 후 귀가했다가 다시 춘천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분들은 6일부터 춘천에서 숙박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7월 26일까지 각 성당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숙박 여부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께서 함께 교제하며 쉬고, 영적으로 뜻깊은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 수련회 준비 - 춘천 성당 복지관 청소 봉사

대교구 수련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성당 장년회(‘하느님의 일꾼들’)와 신데즈모스 회원들이 17-18일에 춘천 성당을 방문하여 복지관과 마당 청소를 진행합니다. 양일간 청소를 한 후, 19일(주일) 아침 일찍 서울 성당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서울 성당 외 다른 성당의 신자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다음 주일(12일)까지 서울 성당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도서 소개



결혼과 가족에 관한 이 책을 모든 신자에게 권합니다. 또한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 앞으로 결혼을 생각하는 이들, 그리고 이미 가정을 이룬 부부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인천 성 바울로 성당 축일 후기

지난 주일(6월 28일), 축일을 맞아 성찬예배와 아르토클라시아가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나창규 다니엘 대신부, 크리스토퍼 보제의 집전으로 거행되었습니다.

대주교께서는 설교에서 사도 바울로의 기도 생활을 모든 신자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범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랑의 오찬이 있었으며,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의 안식 4주기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